

#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에 1조... 통큰 지원 발표

###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지급·자족기능 신도시 조성

### 110만평 소음완충구역 추가 확보·소음대책 마련 등

광주시가 광주군공항 유치지역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26일 오전 청사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책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제시한 지원책은 ▲1조 원 조성 지원 ▲햇빛연금 등 지역맞춤형사업 협의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지급 ▲자족기능 갖춘 신도시 조성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신축 등 광주 공공기관 이전 ▲소음완충구역

추가 확보·훈련시간과 비행경로 조정 협의 ▲농수축산물 우선 구매·광주시에 전용 판매장 설치 등이다.

강 시장은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 방안으로 우선 지역개발사업지원금은 당초 기부대 양여에 의한 차액으로 발표했던 4508억 원에 광주시 재원을 추가, 1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시한 1조원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강 시장은 설명했다.

또 “군공항 유치의 향사가 제출되는 시점부터 햇빛연금·스포츠아카데미·MRO산단·국제학교 등 구체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은 유치희망 지자체·전남도·중앙부처와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유치지역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해 가구별·개인별 이주정착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공공주택을 포함한 이주단지·영외관사·정주시설 등을 집적화시켜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일부 공공기관을 유치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강 시장은 “연간 5000여 명이 교육을 받는 광주시공무원교육원을 유치

지역에 신축하는 등 광주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며 “이전 지역에는 110만 평(3636㎡)의 소음완충지역을 추가로 확보하고, 훈련시간과 비행경로 조정 등 국방부·공군본부와 협의해서 소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유치지역 생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광주시에 전용 판매장을 설치하겠다”며 “광주시는 새로운 군공항 유치지역이 미래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남도·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 광주 하반기 승진 의결...3급 4명·4급 12명

### '눈에 보이는 변화' 이끈 성과창출자 발탁 승진

광주시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명예퇴직·조직개편 등에 따른 결원직위에 3급 4명·4급 12명·5급 21명 등 총 159명을 승진 의결했다.

이번 승진인사는 민선8기 1년 동안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끈 성과창출자를 승진자로 의결한 동시에 하반기 조직개편과 맞춰 앞으로 3년간 '손에 잡히는 변화'를 실현시킬 추진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국·과장급은 시정 기여도와 간부 공무원 역량인 리더십·추진력·정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5급 이하의 객관적 평가 기준인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바탕으로 현안 업무 성과자를 과감하게 발탁했다.

3급 승진자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혁신과 지역 농민의 오랜 염원인 농민공익수당 도입에 앞장서는 등 굵직한 시정 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어나간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은옥 비서실장은 시정비전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이루고 '공약에 민심의 옷'을 입히기 위해 정책보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과 대내외 소통에 힘쓰며 광주의 새로운 변화에 기여했다.

정영화 인사정책관은 자치행정·혁신·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풍부한 경험을 살려 최초의 여성이자, 민선8기 첫 인사정책관으로 인사를 총괄했다. 공정·신뢰·능력 중심의 인사혁신안을 세워 다수가 공감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인사행정의 토대를 구축했다.

/조선주 기자

# 전남 기능성 상추 '흑하랑'

### 가공품 일본 첫 수출

### 3종·3천800만원 규모

전남도는 천연 소재로 속면 효과가 있는 기능성 상추 '흑하랑' 품종의 가공제품이 26일 상차식을 갖고 일본 첫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동합평산업단지의 ㈜전지온에서 열린 이날 상차식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상익 합평군수, 김철환 흑하랑공동생산자연합회장, 참여 농가, 신선식 두원농협조합장, 조용국 ㈜엘리펀 대표, 정범기 ㈜전지온 전무 등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주인공들이 참석했다. 또 박종택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지역농협 관계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합평군의회의 의원 등 5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가공제품은 흑하랑 차·흑하랑-유자C 젤리·흑하랑 반가공 분말 제품, 3종 3천 800만 원 규모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일본 수입업체와 생산자연협회,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과 협력한 성과다.

전남도는 기능성분 최대화를 위한 표준 재배 기술을 정립하고 수출 확대 및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시장 수요에 맞춰 재배 면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남에선 35농가가 30ha 면적에서 흑하랑 500여 톤을 생산했다.

흑하랑 상추는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8년간의 연구 끝에 2019년 등록을 마친 품종이다. 정신 건강과 수면 효과가 있는 락투신 성분이 3.74mg/g으로 일반 상추에 비해 124배나 많다.



광주TP 지·산·학·연 거버넌스협의체 출범식 26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TP 지·산·학·연 거버넌스 협의체 출범식에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등 참석자들이 함께 분부동 1층에서 광주시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현판제막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니콜라 부리오 감독 "내년 광주비엔날레, 공간과 인류의 삶 성찰"

### 제15회 주제 '판소리- 21세기 사운드스케이프'



"공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이 공간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집니다."

니콜라 부리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선임 이후 첫 한국을 찾아 오는 2024년에 열릴 비엔날레의 전시 윤곽을 발표했다.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지난 25일 광주에서 열린 '비엔날레 주제·방향성 발표 기자회견'에서 "판소리가 민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지역(공간)을 반영한다는 점이 흥미로워 전시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간은 지구가 당면한 기후 변화, 팬데믹 등을 떠올리게 한다"며

"전시는 인간이 공간을 다른 생명과 어떻게 지혜롭게 나눠 쓸 것인지, 소수자의 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전시 주제 '판소리-21세기 사운드스케이프(PANSORI -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는 한국 전통 음악인 판소리를 매개로 인류가 직면한 공간을 탐구한다.

특히 3개의 테마를 갖춘 본전시는 기후변화 문제 등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하나의 대서사로 담아낸다. 광주 도심 곳곳에 마련될 외부 전시도 지역에 기반한 소리를 들려준다.

/김도기 기자

# "여러분이 바라는 광주 실현하겠다"

### 강기정 시장 초등학생들과 대화... "여러분의 꿈이 내꿈"

"놀이공원 가려면 서울까지 가야 해서 힘들어요. 광주에도 놀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강기정 시장이 26일 북구 문흥초등학교에서 학생 20여 명과 함께 '광주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빛나는 세대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대화는 민선 8기 1주년을 기념, 그동안 시민·전문가들과 광주 발전을 논의하던 소통의 장을 확대해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이 바라는 광주의 모습을 듣고, 생각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문흥초등학교는 2019년 전교생 투표를 통해 학생회 규정을 바꿔 정

당 방식 학생회장 선거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학교에는 '생각을 존중한다' '문어뿔이 빛난다' '즐거워 학교당' 등 3개 정당이 활동하고 있다. 광주 최초로 학생·교직원·지역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문어뿔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등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대화를 위해 문흥초등학교 학생들은 4-6학년 전체회의를 통해 200여 명이 강당에 모여 대화주제를 정하고, 공모를 통해 시장과의 만남 학생추진단 13명을 선발했다.

/조선주 기자

#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촉구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6일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남·소촌·평동·침단 등 광주 전역에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고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기업들 또한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광주의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가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과 공급망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차 소부장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세액 공제, 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된다면 빛나는 산업과 신규 국가산단에는 국제적 전기차, 미래차 생산단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광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광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